

네덜란드 기업에서 알츠하이머 전단계에서 비침습·비외과적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

Summary

네덜란드의 한 기업에서 유전학 정보에 관련된 DB를 활용하여 알츠하이머 병에 유전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기 위해, 바이오 센서 또는 바이오 기술 등 관련 경험이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고있으며, 협업을 통해 알츠하이머 질병의 진단이 가능하면서 치료제 개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사용이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스크리닝) 기기를 개발하고자 함.

Description

네덜란드 소재의 한 중소기업은, 환경적 요인과 생활패턴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신경퇴화, 암, 면역기능 장애)에 대해, 기존의 발병 후 독성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법에서 빠르고 저렴하면서 최소 침습적인 전 임상(임상 전의, 증상발현 전의) 진단 방법으로 전환하여, 질병으로 발병되기 전에 환경 요인과 생활방식에 의해 유발된 병리를 감지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자 함.

뇌손상이 크게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질병(AD)으로 진행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기 부족이 결국 AD 치료제 개발의 99.6%가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음. **기존의 알츠하이머 질병(AD) 진단 방법은, AD 초기 증상 및 진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뇌 손상의 직접적인 영향과 이로 인한 증상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짐.** 즉, 이러한 진단은 AD가 이미 진행되고 몇 주, 때로는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영향이 크고 60% 미만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외과적 개입이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동 사는 **AD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환자들 및 의료계 종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비침습진단용 AD 전 단계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함. 최소한의 순환 biomarker 세트를 간단하고 저렴한 진단기기에 통합하여, **침습성을 줄이고 AD의 시작 및 초기 발생 단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환자가 큰 뇌 손상을 입기 전에 AD 진단이 가능함. 동 진단 기기는 질병 검사 및 최초 진단 단계에 효과적일 것이며, 임상 전후 치료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동 사는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진단을 위해 인간 혈액, 혈장 또는 혈청에서 microRNA프로필을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또는/이와 같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바이오퉴크기업 선호)**와 함께 **Joint venture/license agreement** 등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biomarker 프로파일과 통합하여 **AD 검사, 진단 및 개발되는 AD 치료제의 유효성 추적을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장치를 개발하고자 함.**

Partner Sought

- **희망 협력 유형** : 합작 투자(Joint Venture Agreement) 또는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 **희망 협력 파트너** : 알츠하이머 질병(AD) 초기 단계에서 비침습/비외과적 진단(noninvasive diagnosis)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바이오센서 혹은 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